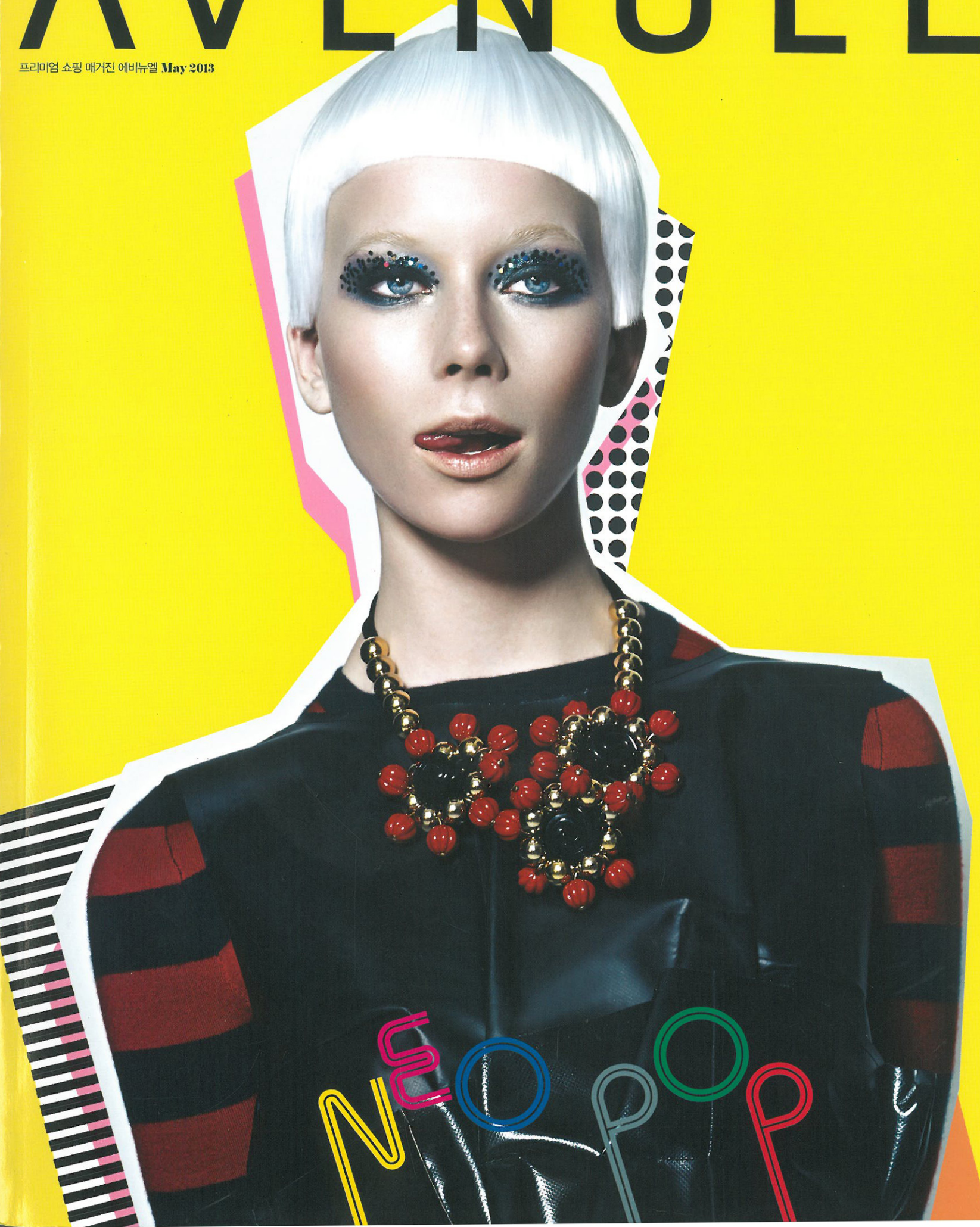


AVENU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May 2013



NSPOP

스털링 루비의 재발견

모네의 그림을 떠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회화는 놀랍게도 온갖 색상의 스프레이를 뿌려 그린 것이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갱 멤버들이 영역 표시를 위해 뿌린 스프레이의 흔적에서 영감을 얻은 스텔링 루비의 작품은 소외된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자 피상적이고 무가치해진 것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다.



매일 밤 갱들의 영토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다운타운 시가지의 벽들은 온갖
 색상의 스프레이 흔적이 중첩되어 '스프레이
 회화들이 되어버린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시청 측에서 아침이 되면 모든 벽면을
 말끔히 하얗게 복구해버린다는
 것이다. 루비는 이를 깨진 유리창
 이론(유리창이 깨지면 이를 얼른 치워놓아야
 반복되는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빗대어 관찰했다.



'SP235', spray paint on canvas, 254x365.8x5.1cm, 2013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한 동시대의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인 마이크 켈리(Mike Kelley)의 최근 자살 소식은 그 다음 세대 작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즈음 열린 스텔링 루비의 전시는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이크 켈리의 제자이자 그의 영향을 받은 동시대 작가 스텔링 루비(Sterling Ruby)는 1970년대 전후 세대에 태어난 미국 출신 작가 중에서도 급진적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을 실험적인 태도와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선보여왔다.

그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유년기에 보수적인 시골에서 자라나 당시의 하위 문화, 곧 서브컬처가 주요한 문화의 일부로 자리 매김하던 시기를 지나온 세대다. 독일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외곽과 볼티모어 등지에서 살았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평범한 농사일을 하던 그의 부모는 시골 사람이기보다 히피와도 같은 삶을 향유했다. 당시 지역의 자그마한 농업 학교를 다녔던 루비는 캘리그라피와 같은 미술 수업을 듣기도 했고, 방과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간혹 가다 운이 좋으면 근교의 워싱턴 DC에서 맥도날드에서 외식을 하는 유년 시기를 보냈다. 이 때문인지 루비의 친을 표백하고 기워 만든 콜라주 회화나 도자기를 재료로 한 일련의 조각들에서는 당시의 경험, 곧 지역적인 수공 문화 혹은 공동체적 관습들에 기인한 작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루비는 이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수학하며 유럽, 특히 프랑스의 후기 모더니즘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서부 파사데나에 자리 잡은 아트센터에 입학하여 미술 이론뿐 아니라 전통 회화 조각을 훈련하며 전방위적 재료와 기법을 다루게 되었다.

스텔링 루비는 예술가로서는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1972년생임에도 본인이 지나온 시대에 대한 부채의식을 지닌 작가다. 1980년대 초기 미국 대중문화, 예를 들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무비, 패스트푸드 등 소비를 조장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던 자본주의의 만연한 풍조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던 폴 매카시나 마이크 켈리의 작품은 때때로 과격하기도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성적으로 방종한 이미지적 충격을 통해 당시 사회를 시사적으로 풍자했다. 하지만 스텔링 루비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는 더욱 가공된 문제의식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슈퍼맥스(Supermax)라 불리는 흉악범들을 잡아 가두는 철저히 고

립된 감옥이 재소자의 정신질환을 야기하며 한정된 사고를 세뇌시키는 것과 관련해 MSNBC와 같은 미국 주요 방송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보여주는 시청자의 관점(마치 감옥의 재소자들을 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에 관해 의문을 던진다. 이는 미국 사회의 병리에 대한 우회적 풍자이자 시각적, 미술적으로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알레고리를 담고 있다.

소외된 것에 대한 새로운 기능성의 제안

이러한 루비의 관심사는 1990년대의 펑크록, 힙합, 그래피티와 같은 당시 하위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지금의 그가 추구하는 전통 미술 장르의 기법으로 모든 전형을 뒤섞어버리는 비미술적인 표현양식을 갖게 했다. 그 예로 루비가 다루는 재료 중 세라믹, 즉 도자 공법을 활용한 'Basin' 작품 연작을 볼 수 있다. 이는 가마에서 굽고난 뒤 못쓰는 도자기들을 부수어 흙으로 빛을 낼찍하고 둥글 납작한 대야에 모든 파편과 조각을 뒤섞어 넣고 열을 통해 형상을 녹여버린 작품으로 그 위에 다시 유약칠을 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한다. 다시 몇 차례 반복적인 유약 처리와 가열 과정을 통해 한낱 쓸모없이 버려진 도자 파편들은 새로운 목적을 지닌 조각으로 재탄생한다. 이는 아웃사이더와 같이 소외된 자의 회복을 반추하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조형적인 오브제가 기존 조각으로서의 결과 아닌 모든 것이 뒤섞여버린 그 자체로서 드러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스텔링 루비의 대표작인 스프레이 회화들의 경우 더욱 자유로운 펑크와도 같은 정서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가 지내온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갱(Gang) 멤버들이 서로의 영토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다니며 빈 벽을 찾아 영역 표시를 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렇게 매일 밤 서로의 영토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다운타운 시가지의 벽들은 온갖 색상의 스프레이 흔적이 중첩되어 '스프레이 회화들이 되어버린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시청 측에서 아침이 되면 모든 벽면을 말끔히 하얗게 복구해버린다는 것이다. 루비는 이를 깨진 유리창 이론(유리창이 깨지면 이를 얼른 치워놓아야 반복되는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빗대어 관찰했다. 이러한 사연을 지닌 파스텔 톤의 스프레이 페인트로 구성된 회화 연작은 마치 대기의 환영과도 같으나 서로의 영역을 위한 저항적인 흔적으로도 읽어볼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콜라주 시리즈들을 살펴보면 골판지를 재활용하거나 표백된 캔버스 위에 작업실에서 쓰다 남은 버려진 천이나 작업복, 노끈 등 각종 오브제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원래 우레탄을 소재로 한 큰 조각을 제작할 때 작업장 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골판지들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작업장 바닥에서 밟히고 때가 탄 수명을 다한 골판지인데 루비는 이를 다시 '발굴'하여 새로운 추상화로써 탈바꿈했다. 검은 배경을 부분적으로 하얗게 표백한 뒤 각종 지퍼나 작가의 아기들이 한때 입던 옷을 갖다 붙여놓은 'BC(3977)' 혹은 'BC(4089)' 작품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표백된 캔버스(Bleaching Canvas)의 이니셜을 딴 제목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말레비치와 같은 전통적 작가의 추상회화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재활용된 오브제를 통해 현대회화로 거듭났다. 이는 작가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며 경험한 미국 아미시(Amish)족의 전통 관습 중 하나인 퀼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을 영위하는 아미시족 여자들은 친족 내 혼인 시 각각 천 조각들을 가져와 바느질로 기워 붙여 큰 이불을 만들어 선물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루비의 콜라주 작품의 근간이 되는 경험이었다. 그 외에도 이번 전시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소프트 스킵스처(Soft Sculpture)'로 불리는 부드러운 조각물이 있는데 면 혹은 가죽 같은 부드러운 소재의 직물을 통해 봉제된 형상을 감싼 유머러스한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된 스틸링 루비의 작품 세계를 함축해보자면 주변화에 대한 이해에 따른 회복을 가장 주요하게 들 수 있다. 사실 그의 작품이 지니는



'EXHM(3682)', collage and urethane on cardboard, 171.5×328.9×6.4cm, 2012

다양한 재료와 내용을 단어로 함축하는 것은 헛될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작가의 작품 태도가 지니는 책임감은 소외된 것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재생산, 재활용, 재가치를 정립한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비롯된 인간의 심리적 기제들과 일상의 현상에 따른 시각적인 거울 효과는 단순히 작품을 미학적으로 바라보거나 교육받은 기준에 근거하여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심 혹은 재고이며 잊혀져 있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관점으로 상쇄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루비는 심리학적 공간에서 사회적 구속에 따른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표현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이는 피상적이고 무가치해진 것들에 대한 기념비적인 시도이며 더 이상 새로워질 게 없는 염세적인 사회에 대한 대안적 가능성의 제시다. ▣

스틸링 루비의 개인전은 5월 10일까지 국제갤러리 전시장 3관과 1관에서 열린다.



'Debt Basin 2', bronze, stainless steel pedestal, 243.8×243.8×50.8cm, 2011

'BC(3977)', collage, paint, bleach, gule, fabric on wood, 213.4x213.4x5.1cm, 2012

